

좋은 자조모임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인식 유형 탐색 - Q 방법론의 적용 -

최수안*

초 록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결혼이주여성의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며, 이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에서 가설을 형성하고 유형을 구조화하는 데 용이한 Q 방법론을 주요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P표본(참여자)은 자조모임에 1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 20명이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의 좋은 자조모임에 대한 인식은 총 여섯 가지 유형으로, '정보와 연결되는 자조모임', '일자리로 연결되는 자조모임', '이주 어머니들과 연결되는 자조모임', '권리 옹호로 연결되는 자조모임', '치유로 연결되는 자조모임', '문화가 연결되는 자조모임'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자조모임 운영에서의 결혼이주여성 관점의 철저한 반영과 지원 및 열린 공간의 자조모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및 자조모임에 관한 연구의 다양화, 자조모임 운영적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인식 유형, Q방법론,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수료(hsu.choi@gmail.com)

I. 서론

한국 사회는 세계적 차원의 ‘이주의 여성화’ 현상 속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김영순·최수안, 2022).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요구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김현미, 2008; 임혜정, 2017). 관이 주도하는 사회통합 정책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욕구와 요구에 대한 담론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며,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떻게 한국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측면의 담론이 여전히 우세하다(박경애 외, 2012). 사회통합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구성원의 간의 관계 맺음을 통해 서로를 이해함으로써, 공존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김영순 외, 2019)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함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김현미, 2008; 임혜정, 2017).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로서 자조모임은 서로를 돕는 상호 지원의 개념에 기초하며,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목적을 수행한다(Khasnabis et al., 2010). 상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조모임에서 구성원들은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험적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함으로써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함은 물론, 비판적으로 문화를 인식할 수 있다(김영순·김도경, 2022). 자조모임은 단순히 사회 적응을 돕는 기능적인 수준을 넘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기 주도적인 성장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민가영, 2011). 다시 말해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 참여는 이들이 사회참여의 행위자로서 자립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임선우·윤황, 2017).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적이거나 공적인 차원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모임을 구성하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쉽지 않다(김이선 외, 2020).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조모임을 주요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제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2010~2012)부터 자조모임 지원을 명시하고, 운영지원 및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가족센터를 비롯한 다문화 관련 지원기관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자조모임은 2020년 기준 전국 209개의 센터를 중심으로 46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1: 66).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이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모임 및 활동에 대한 참여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영향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관 주도의 일방향적인 운영에서 탈피하여, 이주여성들이 자조모임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심도있는 고민과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박경애 외, 2012; 여성가족부, 2022).

결혼이주여성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다층적인 차원에서 생활세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최승은, 2019), 이들의 자조모임에 관한 욕구와 요구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추측된다. 기존의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에 관한 선행연구는 자조모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정책제언을 위한 연구, 자조모임을 통한 정체성 형성 및 권한 획득, 자조모임에서의 개인적 성장 및 구성원 간 상호 교류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조모임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에 관한 주관적인 인식과 정의를 구조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동체로서 자조모임에 관한 논의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의 관점에서 가설을 형성하고 유형을 구조화하는데 용이한 Q 방법론을 주요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Q 방법론은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인식과 유형에 집중하고, 가설을 생성하는 데 탁월한 연구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식하는 좋은 자조모임의 유형과 그 특징을 제시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결혼이주여성이 생각하는 좋은 자조모임은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자조모임은 자조(自助)뿐만 아니라 상호(相助)를 중시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조의 뜻이 ‘자기돕기’인 동시에 반드시 ‘이웃돕기’와 함께 할 때 자조모임이라 정의될 수 있다(Smiles, 2002).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시작하는 자조모임은 결과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과 모임을 형성한다. “같은 배를 타고 상호 간 도움을 주는 모임”(Caplan, 1974: 23)으로서 자조모임은 기존의 사회 체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조모임은 자발적 결사체와 같이 외부의 개입없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경우 보다는 전문가 집단과의 상호 협력적

관계가 선호된다. 이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지나친 자기 해결의 강조는 오히려 사회적 분리와 고립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경준, 2006).

박경애 외(2012)는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하여 혼합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다문화관련 지원기관 한국인 담당자 158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필요성, 자조모임 형태, 성공요인 등을 양적연구로 살펴보았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8명, 자조모임 운영 실무자 7명, 자조모임 관련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의 문제점 확인을 위한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질적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발성, 동기부여, 생활의 여유, 기정착자의 참여, 자조모임의 연계 등을 자조모임 성공을 위한 요건으로 제안하였다. 운영 실무자들은 동질성 있는 집단 구성, 운영 공간, 운영 기간, 실무자 역량 등을 성공을 위한 요건으로 제안하였다. 이윤진(2022)은 자조모임 운영에 있어 정착주기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이주 적응기-정서적 지지와 정보 공유, 내적 성장기-삶의 질 제고와 목적 성취, 사회적 역할 재조명기-지역사회 참여와 사회공헌으로 자조모임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시기별로 구분하여 신문기사 자료만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에 대한 인식 특성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정성미(2010)는 출신국가별로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을 정체성 형성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학술적 목적(중국), 종교적 배경(일본, 필리핀), 결혼정보업체(베트남), 친목(중국, 태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여성들은 출신국가별로 구성된 자조모임 안에서 각자의 동기에 따라 자조모임을 떠나기도 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은 '정체성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김정선, 2012; 이숙진·김안나, 2013) 확장을 꾀하기도 한다. 전미영(2009) 또한 자조모임 프로그램이 임파워먼트를 획득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는 자신들의 권리를 표현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인정투쟁의 장으로 기능한다(김영옥, 2010; 오은주·고진호, 2021; 임선우, 2020; 최미경, 2018). 결혼이주여성들의 공동체로서 자조모임 또한 자조모임 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자조모임이 다양한 형태로 연결되면서 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진다(김기화, 2022; 김영순·최수안, 2022).

이춘양 외(2020)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조모임 참여경험을 사회적 측면, 생활적 측면, 심리적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 자조모임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모국의 문화를 알리는 것을 통해 한국 사회의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마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자문화와 타문화 간 지식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상호문화소통 경험"(김영순·김도경, 2022: 17)이라고 볼

수 있다. 최미경(2018: 64)은 “문화통역 역할”, “교차문화 이해”와 같은 용어로 이러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생활적 측면은 이주 어머니로서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공유하고(서태실·이윤정, 2017; 임선우, 2020), 일자리 정보, 교육참여, 생활정보 등 삶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네트워크 형성을 의미한다(김영순·문희진, 2022; 박경애 외, 2012; 이춘양·김수민·이현주, 2020; 임선우·윤황, 2017; 최미경, 2018). 다시 말해 자조모임은 “경험의 저장소”(김영순·문희진, 2022)로서, 구성원 간 상호작용과 자조모임 내외의 활발한 연결을 통해 경험적 지식이 구축된다. 이춘양 외(2020)는 경험적 지식에 기반한 자조모임 활동이 자조모임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적 보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심리적 측면에서 자조모임은 고향에 대한 향수를 해소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이춘양·김수민·이현주, 2020; 임선우, 2020; 정성미, 2010).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사회적 지지 기반이 되며(최미경, 2018; 김영순·김도경, 2022), 더 나아가 삶에서 자신감을 획득하고, 전문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김영순·최수안, 2022; 박경애 외, 2012; 이춘양·김수민·이현주, 2020; Kim & Kim,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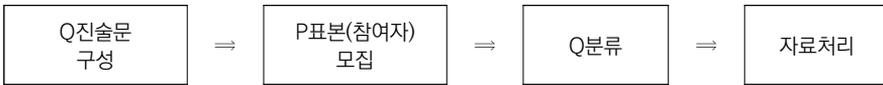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자조모임은 구성원의 개인적 차원에서 생활 및 심리적 영역과 상호소통적 차원에서 구성원 간 교류, 권리 획득의 영역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자조모임이 사회통합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인식 및 운영의 영역 등을 다층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좋은 자조모임에 대한 Q진술문을 구성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Q방법론은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슨(1935)에 의해 발명되었다. 이러한 발명은 주관성의 애매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틀을 가져오려는 그의 열망에서 비롯되었다(Herrington & Coogan, 2011). Q방법론은 특정 주제에 대한 ‘관점’을 탐구하고자 할 때 유용하며, ‘정성적 데이터의 정량화’를 통해 질적 분석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Shemmings, 2006). Q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의 취향, 선호도, 감정, 동기나 목표와 같은

주관성을 탐색하는 것이다(Stainton -Rogers, 1995). 따라서 Q방법론은 R 방법론과는 달리 연령이나 계급 등 개인 특성 전반에 걸친 패턴에 따른 차이를 중시하기 보다는, 각각의 진술문을 연구참여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순위를 매김으로써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생각하는 좋은 자조모임에 대한 인식과 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수행 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수행 절차

2. Q진술문 구성

Q진술문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표 1>과 같이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을 개인적 차원, 상호소통적 차원, 사회통합 차원으로 범주화하고 일곱 개의 영역으로 구성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7개의 Q진술문 초안을 구성하였다.

<표 1>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Q진술문 구성틀

| 범주 | 영역 | Q진술문 |
|----------|-----------|---------------------------------|
| 개인적 차원 | 생활적 영역 | 1,7,25,26 |
| | 심리적 영역 | 2,6,14,23,24,37 |
| 상호소통적 차원 | 교류의 영역 | 8,9,10*,12,17,18,20,27,36,38,39 |
| | 사회참여 영역 | 5,7,11,19,22,31,34 |
| | 권리 획득의 영역 | 3,4,35 |
| 사회통합 차원 | 정책적 영역 | 13,16,40 |
| | 운영적 영역 | 15*,21*,28,29,30,32,33 |

(*는 초안 평정 이후 추가된 진술문)

이후 초안 평정을 위하여 베트남 및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각 1명, 교수 1인에게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와 같이 유형이 아닌 우선순위를 살펴보는 인식을 주는 부사를 삭제하였고,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긴 문장1), 의미가 중복되는 문장2)을 정리하였다. 또한 평정에 참여한 결혼이주여

성들로부터 일부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술문을 추가하였다.³⁾

10번 진술문은 18번 진술문(본보기가 될 수 있는 선배가 있는 자조모임)과 비교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원의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15번 진술문은 5번 진술문(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자조모임)과 비교함으로써, 자조모임이 경제적 측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21번 진술문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것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대면 모임 강화 또는 대안적 자조모임의 필요성 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은 듣기와 말하기에 비해 읽기와 쓰기를 어려워한다⁴⁾는 의견에 따라,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받고 모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베트남 및 중국인 전문가에게 번역을 의뢰하였다. 40개 Q진술문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좋은 자조모임에 관한 Q진술문

| 연번 | 좋은 자조모임이란 |
|----|---------------------------|
| 1 | 가족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자조모임 |
| 2 |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 자조모임 |
| 3 | 결혼이주여성들의 권리를 표현하는 자조모임 |
| 4 | 결혼이주여성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조모임 |
| 5 |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자조모임 |
| 6 | 고향의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자조모임 |
| 7 | 교육 참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
| 8 | 구성원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조모임 |
| 9 |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자조모임 |
| 10 | 새로운 구성원이 많이 들어오는 자조모임 |
| 11 |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 |
| 12 |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자조모임 |
| 13 | 국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
| 14 |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

- 1) 예: 자조모임을 통해 한국어공부, 취업준비 등 자기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해야 한다.
- 2) 예: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자조모임
- 3) 새로운 구성원이 많이 들어오는 자조모임(#10),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자조모임(#15),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자조모임(#21)을 추가하였다.
- 4) 결혼이주여성이 말하기와 듣기에 비해 읽기와 쓰기에 어려움을 경험한다(이윤주, 2019).

| 연번 | 좋은 자조모임이란 |
|----|----------------------------|
| 15 |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자조모임 |
| 16 | 다문화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
| 17 | 모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자조모임 |
| 18 |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선배가 있는 자조모임 |
| 19 |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
| 20 | 부부가 함께하는 자조모임 |
| 21 |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자조모임 |
| 22 |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조모임 |
| 23 |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자조모임 |
| 24 |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조모임 |
| 25 |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
| 26 |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
| 27 | 자녀와 함께하는 자조모임 |
| 28 | 전문가가 도움을 주는 자조모임 |
| 29 |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자조모임 |
| 30 | 주말에 운영되는 자조모임 |
| 31 |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자조모임 |
| 32 | 초기적응을 지원해주는 자조모임 |
| 33 | 충분한 활동공간이 있는 자조모임 |
| 34 | 취업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자조모임 |
| 35 |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조모임 |
| 36 |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자조모임 |
| 37 | 한국생활에 자신감을 주는 자조모임 |
| 38 |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
| 39 | 한국인 이웃과 많이 교류할 수 있는 자조모임 |
| 40 | 행정기관의 업무처리를 지원해주는 자조모임 |

3. P표본(참여자)

Q방법론은 일반적으로 단지 특정한 관점의 존재를 밝히고 이후에 그러한 관점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비교하는 데 목적이 있다(Brown, 1980). 따라서 좋은 Q방법론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많은 수의 P표본이 필요하지는 않다. Q방법론의 목적이 가설을 검증하여 일반화시키려는 데 있지 않고, 가설을 발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김홍규, 2008). 적절한 P표본의 수는 Q진술문의 50% 가량의 비율이 적절하다고 제시되고 있다(Watts & Stenner, 2012).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Q진술문은 40개로, 이에 해당하는 50%인 20명의 P

표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P표본 모집은 의도적 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활용하였다. 의도적 표집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조모임에 1년 이상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자, 둘째, 한국어로 말하고 듣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이다. 셋째, 중국 및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하였다.⁵⁾ P표본은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이들에 대한 기본정보는 다음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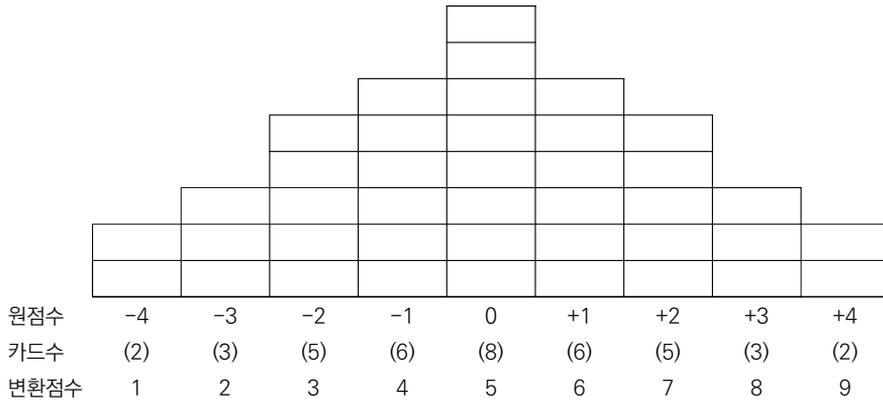
<표 3> P표본 기본정보⁶⁾

| No. | 출신 국적 | 현재 국적 | 나이 | 이주 연도 | 자조모임 참여기간 | 학력 | 직업 |
|-----|-------|---------|----|-------|-----------|------|-------|
| 1 | 베트남 | 한국, 베트남 | 35 | 2015년 | 3년 | 대졸 | 주부 |
| 2 | 베트남 | 한국, 베트남 | 33 | 2016년 | 1년 | 대졸 | 주부 |
| 3 | 베트남 | 한국, 베트남 | 37 | 2008년 | 3년 | 대졸 | 서비스업 |
| 4 | 베트남 | 한국, 베트남 | 40 | 2017년 | 2년 | 대졸 | 주부 |
| 5 | 베트남 | 한국, 베트남 | 28 | 2015년 | 2년 | 대학재학 | 상담사 |
| 6 | 베트남 | 한국, 베트남 | 29 | 2017년 | 2년 | 대졸 | 회사원 |
| 7 | 베트남 | 한국, 베트남 | 30 | 2016년 | 2년 | 고졸 | 보조교사 |
| 8 | 중국 | 중국 | 43 | 2013년 | 9년 | 대졸 | 회사원 |
| 9 | 중국 | 중국 | 47 | 2007년 | 4년 | 고졸 | 주부 |
| 10 | 중국 | 중국 | 44 | 2010년 | 7년 | 중졸 | 주부 |
| 11 | 중국 | 중국 | 52 | 2010년 | 6년 | 고졸 | 주부 |
| 12 | 베트남 | 한국, 베트남 | 31 | 2012년 | 4년 | 대졸 | 통번역사 |
| 13 | 베트남 | 한국, 베트남 | 35 | 2012년 | 2년 | 중졸 | 주부 |
| 14 | 베트남 | 한국, 베트남 | 31 | 2015년 | 1년 | 고졸 | 주부 |
| 15 | 베트남 | 한국, 베트남 | 32 | 2013년 | 2년 | 고졸 | 주부 |
| 16 | 중국 | 중국 | 49 | 1995년 | 1년 | 고졸 | 주부 |
| 17 | 중국 | 중국 | 39 | 2005년 | 10년 | 대졸 | 개인사업 |
| 18 | 중국 | 중국 | 39 | 2003년 | 1년 | 대학원졸 | 사회복지사 |
| 19 | 중국 | 중국 | 37 | 2008년 | 8년 | 대학재학 | 상담사 |
| 20 | 중국 | 중국 | 38 | 2008년 | 5년 | 대학재학 | 상담사 |

- 5)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주·귀화자의 출신국적 중 중국 및 베트남 출신이 70.7%로 보고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베트남 27%, 중국(한국계) 26.3%, 중국 17.4%이다(여성가족부, 2022).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및 베트남 여성으로 한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Q진술문 번역에 따른 경제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 6) 연구참여자의 학력을 제한하지는 않았으나, 연구참여자의 60%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참여활동을 한다고 보고된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재훈, 2022; 김연희, 이교일, 2017)

4. Q분류 및 자료처리

참여자에게 Q진술문을 읽게 한 후 Q분포도(그림 2)를 활용하여, 우선 동의하는 진술문은 오른쪽에,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은 왼쪽에, 중립적인 진술문은 가운데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동의하는 진술문 중 매우 많이 동의하는 것은 ‘매우 많이 동의’ 라 적혀 있는 칸에 Q진술문 번호를 적게 하고 차츰 안쪽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다음으로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같은 방법으로 Q진술문 번호를 적게 하고, 중간 부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양극단예(+4, -4) 분류한 진술문에 대해 그와 같이 배치한 이유를 분류가 끝난 직후 바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림 2] Q분포도

Q분류는 2022년 7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직접 면담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자가 이주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류방법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분류에 대한 참여자들의 견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코로나 19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비대면(zoom) 면담과 대면 면담 방식을 병행하였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경우, 번역된 Q진술문(표 1), Q분포도(그림 2) 및 연구참여동의서를 인쇄하여, 참여자의 거주지나 회사 등으로 우편 발송하였다. 우편 수신이 확인된 이후, zoom을 활용하여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Q분류를 함께 진행하였다. 대면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사전에 Q진술문을 SNS를 통해 전달하고,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Q분류를 진행하였다.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하여 Q분류를 위한 면담 시간은 참여자가 편안한

시간대를 확인하여 진행하였으며, Q분류에 소요된 시간은 참여자 1명당 1시간~1시간 30분 가량이다. Q분류의 모든 과정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화 및 녹음하였으며,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고지하였다. 연구 종료 이후 소정의 사례비를 제공하였다.

자료처리는 수집된 자료를 가장 부정하는 문항을 1점으로 시작하여, 2점, 3점, 4점, 중립 5점, 6점, 7점, 8점, 매우 동의하는 문항 9점으로 점수화하여 코딩한 후, PQmethod 2.35를 사용하여 Q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의 결정과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자가중치 1.0 이상을 기준값으로 설정하였다(김흥규, 2008; Stenner, Cooper, & Skevington, 2003). 먼저 주성분분석을 실시하고, <표 4>의 고윳값과 설명변량 낙차를 고려하여 요인을 여섯 개로 결정하였다⁷⁾. 이후 배리맥스 방식으로 회전하고 결과값을 산출하였다.

<표 4> 주성분분석 결과

| 요인 (factors) | 1 | 2 | 3 | 4 | 5 | 6 | 7 | 8 |
|------------------------------|--------|--------|--------|--------|--------|--------|--------|--------|
| 고윳값 (eigenvalues) | 4.5804 | 2.9499 | 1.8716 | 1.4040 | 1.2422 | 1.0593 | 0.9875 | 0.9478 |
| 설명변량 (expl.var.) | 23% | 15% | 9% | 7% | 6% | 5% | 5% | 5% |
| 누적 설명변량 (cum. expl. var.) | 23% | 38% | 47% | 54% | 60% | 66% | 70% | 75% |

PQMethod 2.35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출한 결과 가운데 분석에 활용한 정보는 여섯 요인에 해당하는 인식 유형별 동의, 부동의 진술문과 식별 진술문들이다. 분석 결과를 제시할 때에는 표준점수의 절대값이 큰 상위 5개의 동의, 부동의 진술문과 .05 .01 수준에서 유의한 식별 진술문의 목록을 사용하였다. 표준점수의 절대값이 큰 상위 5개의 동의, 부동의 진술문은 각 요인의 절대적 속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식별 진술문은 다른 요인과 변별되는 인식의 상대적 속성을 보다 두드러지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장성민, 2021).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들의 인터뷰 자료를 직접 제시함으로써, 그

7) Q방법론 분석에서 추출해야 할 요인의 수에 대한 확고한 규칙은 없으며, 연구자의 주관, 고윳값, 설명변량 등을 고려해야 한다(김순은, 2007; Herrington & Coogan, 2011). 요인의 수가 적으면 유형 간 구분이 명확해지지만 소수 유형을 간과할 수 있고, 요인의 수가 많으면 유형 간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좋은 자조모임에 대한 인식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고윳값 1.0이 넘는 요인을 기준으로 삼았다.

들이 지닌 자조모임에 관한 인식과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좋은 자조모임에 대한 인식 유형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PQMethod 2.35의 분석결과와 인터뷰 자료를 수차례 검토하고, 참여자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표 1>의 Q진술문 구성틀을 함께 고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속한 연구공동체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쳤다.

IV.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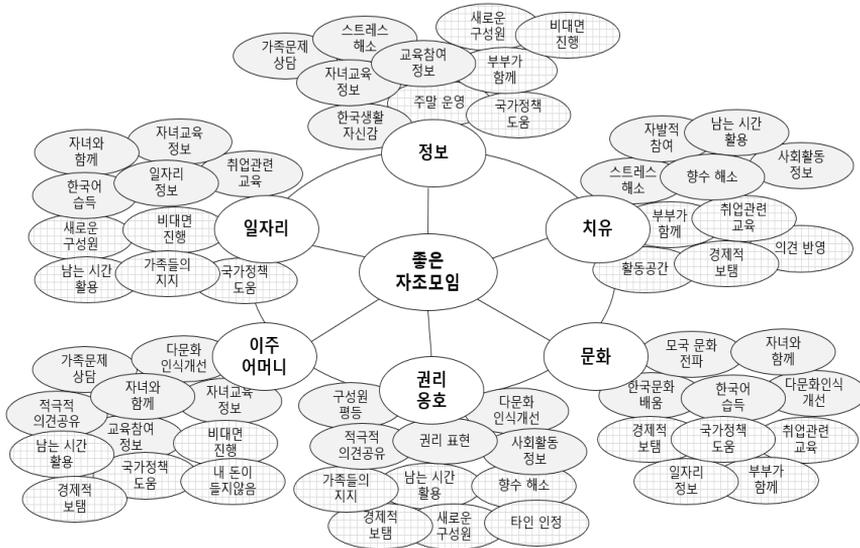
결혼이주여성의 좋은 자조모임에 대한 인식은 6개 유형으로 확인되었으며, 6개 유형의 누적 설명변량은 66%이다. P표본(참여자)별 좋은 자조모임에 관한 Q유형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결혼이주여성의 좋은 자조모임에 관한 Q유형

| P표본 | Q유형 | | | | | |
|-----|---------|---------|---------|---------|----------|---------|
| | 1유형 | 2유형 | 3유형 | 4유형 | 5유형 | 6유형 |
| 1 | 0.0794 | 0.0401 | 0.4179 | -0.0613 | 0.6351X | 0.2691 |
| 2 | 0.5203X | 0.0648 | -0.1069 | -0.148 | -0.1645 | -0.4125 |
| 3 | -0.0127 | 0.6976X | 0.1749 | 0.3441 | -0.311 | -0.1553 |
| 4 | 0.6253X | 0.4148 | 0.1327 | -0.003 | 0.0448 | 0.057 |
| 5 | 0.0542 | 0.6930X | 0.1066 | 0.0126 | -0.0855 | 0.3063 |
| 6 | 0.6790X | 0.3707 | 0.0244 | 0.2536 | 0.0456 | -0.064 |
| 7 | 0.3565 | 0.6453X | 0.0381 | -0.0168 | -0.0008 | -0.2347 |
| 8 | 0.0307 | -0.0364 | -0.0315 | 0.8150X | -0.1878 | 0.2091 |
| 9 | 0.2038 | 0.2315 | 0.2125 | 0.1313 | -0.6081X | 0.0829 |
| 10 | 0.2572 | 0.2077 | 0.1208 | 0.1283 | 0.1457 | 0.8088X |
| 11 | 0.0575 | 0.2481 | 0.1321 | 0.0118 | -0.7254X | 0.0075 |
| 12 | 0.3429 | -0.0063 | 0.1778 | 0.073 | 0.6595X | 0.2149 |
| 13 | 0.1362 | 0.2028 | 0.7991X | -0.0612 | -0.1316 | 0.222 |
| 14 | 0.1621 | 0.1227 | 0.2138 | 0.6159X | 0.4912 | -0.1051 |
| 15 | 0.2447 | 0.0204 | 0.7788X | 0.2746 | 0.1125 | -0.009 |
| 16 | 0.5153 | 0.0886 | -0.5187 | 0.3068 | -0.0841 | 0.1626 |
| 17 | 0.0206 | 0.7802X | -0.0405 | -0.1118 | -0.1346 | 0.1833 |
| 18 | 0.6743X | 0.0079 | 0.2227 | 0.2382 | 0.3573 | 0.0702 |
| 19 | 0.6371X | 0.1438 | 0.2349 | -0.196 | -0.0337 | 0.105 |
| 20 | 0.6999X | -0.1934 | 0.0423 | 0.1081 | -0.0047 | 0.1902 |

6개 유형의 주요 동의 및 부동의 진술문과 참여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제 1유형은 ‘정보와 연결되는 자조모임’, 제 2유형은 ‘일자리로 연결되는 자조모임’, 제 3유형은 ‘이주 어머니들과 연결되는 자조모임’, 제 4유형은 ‘권리 옹호로 연결되는 자조모임’, 제 5유형은 ‘치유로 연결되는 자조모임’, 제 6유형은 ‘문화가 연결되는 자조모임’으로 명명하였다. 각 유형별 동의 진술문과 부동의 진술문을 시각화하여 제시하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격자무늬는 부동의 진술문이며, 식별 진술문은 포함하지 않음



[그림 3] 좋은 자조모임에 대한 유형과 진술문

1. 제 1유형: 정보와 연결되는 자조모임

제 1유형에 해당하는 P표본은 6명으로, 제 1유형은 ‘정보와 연결되는 자조모임’으로 명명하였다. 일상적인 정보들을 접하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조모임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박경애 외, 2012; 임선우·윤황, 2017). 생활적 영역에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7, #26) 스트레스를 해소(#24)하고 자신감을 얻음으로써(#34)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을 좋은 자조모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인적 차원에서의 인식을 주로 살펴볼 수 있다. 제 1유형의 주요 동의 및 부동의 진술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제 1유형의 주요 동의/부동의(상위 5개)

| 진술문 | | 표준점수 |
|-----|---------------------------|--------|
| 동의 | 24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조모임 | 1.570 |
| | 37 한국생활에 자신감을 주는 자조모임 | 1.494 |
| | 7 교육 참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 1.493 |
| | 1 가족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자조모임 | 1.401 |
| | 26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 1.241 |
| 부동의 | 10 새로운 구성원이 많이 들어오는 자조모임 | -1.331 |
| | 13 국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 -1.388 |
| | 20 부부가 함께하는 자조모임 | -1.466 |
| | 30 주말에 운영되는 자조모임 | -2.018 |
| | 21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자조모임 | -2.271 |
| 식별 | 34 취업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자조모임 | 0.82 |
| | 30 주말에 운영되는 자조모임 | -2.02 |
| | 21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자조모임 | -2.27 |

“모국과 많이 달라서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참여자 4) 참여자들은 “모국 친구도 만나고 외국 친구도 만나는”(참여자 18) 소통 과정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생활 속 불안감에서 벗어나 “스트레스 해소” 할 수 있다(참여자 2), 예컨대 참여자들은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나 일자리 정보 및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자신감을 얻게 된다. 특히 모국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한국 사회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왔었는데 한국말도 모르고 그리고 문화차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자신감이 낮아요. 근데 이런 자조 모임 통해서 제가 한국말도 알고 한국 문화도 알고 그리고 한국 그리고 직업도 일할 수 있으면 또 좋아서 그래서 자신감이 점점 높아졌어요. (참여자 6)

“자조모임은 구성원 위해서 하는 모임”(참여자 18)이라는 점에서, 도구적 차원에서 새로운 구성원을 임의적으로 유입시키는 다문화관련 기관의 운영방식에 반대한다(#10, #13). 또한 자조모임은 “같이 울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웃어주고 위로”(참여자 20) 곳이라는 점에서 구성원들만을 위한 곳이며, 비대면 방식보다는 대면 방식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20, #21).

2. 제 2유형: 일자리로 연결되는 자조모임

제 2유형에 해당하는 P 표본은 4명으로, 제 2유형은 일자리로 연결되는 자조모임'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1유형과 마찬가지로 생활적 영역에서 다양한 정보 획득(#25, #26)을 선호하지만, 상호소통적 차원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자조모임(#27과 자조모임 외적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동(#31, #34, #38)을 선호한다. 특히 일자리를 갖는 것은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제 2유형의 주요 동의 및 부동의 진술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제 2유형의 주요 동의/부동의(상위 5개)

| 진술문 | | 표준점수 |
|-----|---------------------------|--------|
| 동의 | 34 취업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자조모임 | 1.931 |
| | 38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 1.852 |
| | 25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 1.510 |
| | 26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 1.466 |
| | 27 자녀와 함께하는 자조모임 | 1.267 |
| 부동의 | 10 새로운 구성원이 많이 들어오는 자조모임 | -1.160 |
| | 14 남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 -1.213 |
| | 13 국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 -1.465 |
| | 21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자조모임 | -1.518 |
| | 2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 자조모임 | -1.700 |
| 식별 | 34 취업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자조모임 | 1.93 |
| | 31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자조모임 | 1.15 |
| | 16 다문화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 -0.90 |

자조모임은 “만나서 그냥 공부하는”, “서로 배우는”(참여자 17) 곳으로 개인적·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터가 된다(Kim & Kim, 2022). 흥미로운 것은 가족들의 지지(#2) 보다는 자신들의 참여의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조모임은 정보를 교환하는 단계를 넘어, 구성원들과 “동네 지역 관리하는”(참여자 17) 것과 같은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 같은 걸 많이 키우고 일자리도 가질 수”(참여자 5) 있다.

처음에는 제가 한국 왔을 때 일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자리 대해서 정보도 모르고. 근데 지금 그 사람은 왜 좋은 일 하고 있냐고. 나 왜 공부도 많이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참여자 7)

참여자들은 자조모임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구성원 간의 소통 과정을 통해 취업관련 교육이나 한국어 습득, 지역사회 활동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또한 이들에게 자조모임은 남은 시간을 활용하는 휴식의 차원이 아니라(#14), 끊임없이 배우고, 서로 간의 좋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일자리로 연결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 1유형과 마찬가지로 자조모임이 도구적 차원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0, #13).

3. 제 3유형: 이주 어머니들과 연결되는 자조모임

제 3유형에 해당하는 P 표본은 2명으로, 제 3유형은 '이주 어머니들과 연결되는 자조모임'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생활적 영역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7, #26), 교류의 영역에서 자녀와의 관계(#1, #26, #27)를 중시한다. 정책적 영역에서 다문화인식 개선(#16)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미래 한국에서 살아갈 자녀들이 편견과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길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 3유형의 주요 동의 및 부동의 진술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제 3유형의 주요 동의/부동의(상위 5개)

| 진술문 | | 표준점수 |
|-----|------------------------------|--------|
| 동의 | 26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 1.396 |
| | 27 자녀와 함께하는 자조모임 | 1.396 |
| | 7 교육 참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 1.336 |
| | 1 가족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자조모임 | 1.336 |
| | 12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자조모임 | 1.306 |
| | 16 다문화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 1.306 |
| 부동의 | 21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자조모임 | -1.110 |
| | 5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자조모임 | -1.621 |
| | 15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자조모임 | -1.876 |
| | 13 국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 -1.906 |
| | 14 남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 -2.161 |
| 식별 | (동의 식별 문항 없음) | |
| | 4 결혼이주여성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조모임 | -1.05 |
| | 15 내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자조모임 | -1.88 |
| | 14 남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 -2.16 |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배경을 가진 어머니로서 다양한 맥락의 교차점 위에 놓여 있다(황정미, 2012). 참여자들은 “여러 나라 사람들 만나서 (이주 어머니로서의) 고민”(참여자 13)을 나누고 아이들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서 심리적 위안을 얻는다. 자조모임은 이주 어머니로서 경험하는 한국의 낮은 교육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 자녀교육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서태실·이윤정, 2017).

(자조모임 참여하면) 좋은 거 잘 받들고 아기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도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학교) 보냈는지 어떻게 전부 다.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참여자 15)

자조모임 안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자로서의 결핍있는 모성이 아니라, 부모로서 지니는 보편적인 물음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길 원하고 있다. 제 2유형과 마찬가지로 자조모임은 휴식의 공간이라기 보다는(#14) 모임을 통해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장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춘양 외(2020)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자조모임은 경제적인 보탬이 되는 공간이 아니며(#5, #15), 자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고 “돈을 조금씩 모아서”(참여자 13) 운영할 수 있는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다(#12). 또한 제 3유형도 앞선 두 유형과 마찬가지로 자조모임이 도구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13).

4. 제 4유형: 권리 옹호로 연결되는 자조모임

제 4유형에 해당하는 P 표본은 2명으로, 제 4유형은 ‘권리 옹호로 연결되는 자조모임’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상호소통적 차원에서 구성원이 평등하게 의견을 공유하며(#9, #12), 권리를 표현하고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좋은 자조모임으로 인식하고 있다(#3, #19). 이러한 결과는 결과적으로 정책적 영역에서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과 연계된다(#13, #16). 이 유형은 앞선 3개의 유형과는 달리 상호소통 및 사회통합 차원을 긍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제 4유형의 주요 동의 및 부동의 진술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제 4유형의 주요 동의/부동의(상위 5개)

| 진술문 | | 표준점수 |
|-----|------------------------------|--------|
| 동의 | 3 결혼이주여성들의 권리를 표현하는 자조모임 | 1.777 |
| | 9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자조모임 | 1.539 |
| | 16 다문화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 1.539 |
| | 12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자조모임 | 1.300 |
| | 19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 1.300 |
| 부동의 | 2 가족들의 지지를 받는 자조모임 | -1.136 |
| | 14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 -1.136 |
| | 10 새로운 구성원이 많이 들어오는 자조모임 | -1.465 |
| | 35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자조모임 | -1.777 |
| | 6 고향의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자조모임 | -1.868 |
| | 5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자조모임 | -2.106 |
| 식별 | 3 결혼이주여성들의 권리를 표현하는 자조모임 | 1.78 |
| | 13 국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 1.21 |
| | 7 교육 참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 -0.88 |

“다문화 공간”(김영옥, 2010)으로서 이주여성의 공동체는 기존의 한국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생성하고, 정체성 정치의 장으로 나아간다. “오래오래 사는 분이 계시는”(참여자 14) 자조모임에서 상호 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10), 일방적인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나누며 한국 사회에 연결될 수 있는 존재임을 자조모임을 통해 실현해 나간다.

저는 외국인이라는 사회 지위에 관심이 많아요. 실제로 다양한 협회 활동을 통해서 의견도 전달하고 있고요. 특히 이중언어교육의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여자 8)

자조모임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여기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곳이다(#6). 따라서 모국과의 연결을 지향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보다 자조모임 구성원들의 의견과 생각, 각자의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2, #35). 각자의 욕망을 실현하는 공간은 역설적으로 자조모임 밖으로 확장됨으로써, 다문화 생산의 주체(김영옥, 2010)로 생성하는 공간이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권리를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체적인 삶의 전환”(임선우, 2020: 193)을 모색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인식한다. 그러나 한편, 자조모임이 도구적 차원으로 운영되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0).

5. 제 5유형: 치유로 연결되는 자조모임

제 5유형에 해당하는 P 표본은 4명으로, 제 5유형은 ‘치유로 연결되는 자조모임’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상호소통적 차원에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11, #19), 심리적 영역에서 안정감을 획득하는 것을 좋은 자조모임으로 인식하고 있다(#6, #14, #24). 제 5유형의 주요 동의 및 부동의 진술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제 5유형의 주요 동의/부동의(상위 5개)

| 진술문 | | 표준점수 |
|-----|------------------------------|--------|
| 동의 | 24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조모임 | 1.848 |
| | 14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 1.670 |
| | 6 고향의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자조모임 | 1.449 |
| | 11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조모임 | 1.348 |
| | 19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 1.306 |
| 부동의 | 33 충분한 활동공간이 있는 자조모임 | -1.142 |
| | 20 부부가 함께하는 자조모임 | -1.281 |
| | 34 취업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자조모임 | -1.627 |
| | 4 결혼이주여성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조모임 | -1.943 |
| | 5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자조모임 | -2.063 |
| 식별 | 14 남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조모임 | 1.67 |
| | 6 고향의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자조모임 | 1.45 |
| | 26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 -0.76 |
| | 25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 -0.89 |
| | 36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자조모임 | -0.91 |
| | 3 결혼이주여성들의 권리를 표현하는 자조모임 | -0.96 |
| | 4 결혼이주여성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조모임 | -1.94 |

자조모임은 서로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대처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찾고, 자신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한다(김영순·김도경, 2022; 최미경, 2018). 자조모임은 동향의 사람들이 “한국 말로 다 표현 못하는 마음”(참여자 1)을 모국어로 함께 나누며, “소통하며 서로 돕는”(참여자 2) 활동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위안을 제공한다.

내가 혼자 뭐 하기에는 잘 모르겠거나 아니면 혼자 시작하기는 힘든 것 같으니까 같은 이렇게 결혼이민자이나 같은 모국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함께 가지 하는 게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참여자 12)

이 유형에게 자조모임은 강하게 연대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목소리는 공간이라기 보다는 같은 출신의 여성들이 함께 하는 느슨한 치유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3, #4). 그렇기 때문에 자조모임은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편하게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이다. 봉사활동은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의 활력소”(김은재, 2018: 74)가 된다.

6. 제 6유형: 문화가 연결되는 자조모임

제 6유형에 해당하는 P 표본은 1명으로, 제 6유형은 ‘문화가 연결되는 자조모임’으로 명명하였다. 이 유형은 교류의 영역에서 한국과 모국 문화를 나누고(#17, #36, #38), 이러한 활동이 정책적 영역에서 다문화인식을 개선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16). 비록 소수 유형이기는 하나,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자조모임이 연결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 6유형의 주요 동의 및 부동의 진술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제 6유형의 주요 동의/부동의(상위 5개)

| 진술문 | | 표준점수 |
|-----|----------------------------|--------|
| 동의 | 17 모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자조모임 | 1.916 |
| | 38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 1.916 |
| | 16 다문화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 1.437 |
| | 27 자녀와 함께하는 자조모임 | 1.437 |
| | 36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자조모임 | 1.437 |
| 부동의 | 5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자조모임 | -1.437 |
| | 13 국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조모임 | -1.437 |
| | 34 취업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자조모임 | -1.437 |
| | 20 부부가 함께하는 자조모임 | -1.916 |
| | 25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 -1.916 |
| 식별 | (동의 식별 문항 없음) | |
| | 25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자조모임 | -1.92 |

문화는 우열을 가리거나 위계화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문화사회에서 문화도 일종의 권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김현미, 2008). 주류 문화와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차별과 배제에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로의 문화 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권리 행사와도 밀접하게 이어질 수 있다.

한국 문화 알고 싶어요. 국가마다 문화 다르잖아요. 한국 문화 많이 궁금하고.. 중국 문화도 알고 싶어서 **** 자조모임 활동도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10)

자조모임은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출신국의 문화를 알림으로써, 출신국 문화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특히 자조모임은 얼마 나라의 문화에 대해 잘 모르거나, 주류 사회의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풍부한 문화적 정체성을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16, #27). 이 유형의 참여자는 모국의 전통춤을 추거나, 모국의 음식문화를 알리는 것에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다문화정책이 문화를 체험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문화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김수진, 2019; 임혜정, 2017), 이러한 자조모임 인식은 소수 유형이기는 하나 다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정책이 축제 요리, 경연 대회 등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차별 구조 속에 있는 결혼이민자들이 경제, 정치적 불평등을 은폐하는 왜곡된 홍보(김선숙·왕경수, 2022)를 해왔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 소통의 유형을 문화체험 수준을 포함하여 더욱 다양화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는 좋은 자조모임에 관한 주관적 인식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좋은 자조모임에 관한 인식유형은 여섯 가지로 제시되었다.

제 1유형은 정보와 연결되는 자조모임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생활 정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유형이다. 제 2유형은 일자리와 연결되는 자조모임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호소통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호한다. 제 3유형은 이주 어머니들과 연결되는 자조모임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자녀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활동하는 것을 중시하며, 궁극적으로 다문화인식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제 4유형은 권

리 옹호로 연결되는 자조모임으로 상호소통의 차원에서 교류하고, 참여하며, 권리를 표현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상호소통이 다문화인식 개선 및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 5유형은 치유로 연결되는 자조모임으로 상호소통의 차원에서 교류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는다. 제 6유형은 소수 유형으로서, 상호소통의 차원에서 모국의 문화를 알리고 한국 문화를 교류하는 것을 통해 다문화인식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조모임은 도구적 차원의 운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6개의 인식 유형 중 4개의 유형에서 자조모임을 도구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13). 또한 제 6유형은 소수 표본에 의해 성립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정책이 여전히 위로부터의 다문화주의에 천착해 있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러한 운영 방식의 문제는 박경애 외(2012)의 자조모임 운영자들의 인식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이 연구에서 종사자들은 자조모임이 필요한 것은 기관에서 하는 행사를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수단이며, 행정기관이나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식하는 좋은 자조모임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조모임 정책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현재 처한 어려움과 문제는 무엇인지 이들의 관점에서 철저히 계획되고 수립되어야 하며, 자조모임이 “미래로의 공간이자 열린 공간이며 소통하는 공간”(김영순·최수안, 2022: 38)으로 다양한 연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조모임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인식 변화와 자조모임 운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및 자조모임에 관한 연구가 다양화되어야 한다. 오은주·고진호(2021)는 결혼이주여성이 공동체 참여경험의 질적 메타분석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차별에 맞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능동적 주체자 되기의 과정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간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연구(김영옥, 2010; 김정선, 2012; 오은주·고진호, 2021; 이윤진, 2022; 임선우, 2020; 최미경, 2018)와 유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유형은 제 4유형이 유일하며, 결혼이주여성이 인식하는 공동체로서 자조모임은 보다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생활세계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조모임 안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세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가령 본 연구에서 제

시된 ‘정보’, ‘일자리’, ‘이주어머니’, ‘치유’, ‘문화소통적’ 측면에서 자조모임이 어떠한 경험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뿐만 아니라 이주 시기나 거주지역 등에 따른 자조모임 인식의 다양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조모임 운영적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사회통합 차원에서 운영적 영역에 대한 진술문이라 볼 수 있는 #28, #32, #33에 대한 내용이 부각되지 않았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조모임 운영에 있어 배제되어 있고, 이미 이러한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적 영역에 대한 중요성이 낮게 인식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자조모임 정책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수혜자로, 다문화 관련 기관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조모임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과의 상호협력적 관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김영순·최수안, 2022; 양혜원 외, 2018; 이경준, 2006).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이 이벤트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기돕기와 이웃돕기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조모임에 대한 비전을 자조모임 구성원과 기관 운영자가 서로 공유해야 하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운영자의 헌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은 ‘지금-여기’의 다문화사회에서 공존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김영순·최수안, 2022).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에 관한 지원 정책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에 직면에 있다(김이선 외, 2020).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이 사회통합 정책의 도구적 차원에서 운영되어 온 것은 아닌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의 관점에서 자조모임의 인식 유형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자조모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목소리임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수혜자와 제공자라는 일방적인 역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자조모임이 함께하는 다문화사회의 대안적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및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고재훈(2022). “이주자의 개인적 연결망과 시티즌십: 여성 결혼이민자의 개인적 연결망의 유형과 결정 요인 분석”.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제46권 제2호. 1-29.
- 김기화(2022).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 연구: 상호문화실천과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제21호. 45-89.
- 김선숙·왕경수(2022). “결혼이주여성의 인정투쟁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Hegel과 Honneth의 이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16권 제1호. 1-27.
- 김수진(2019). *한국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순은(2007). *개정판 Q 방법론과 사회과학*. 서울: 조명문화사.
- 김연희·이교일(2017). “초국적 삶의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전환경험과 미디어 행위자네트워크의 역할”. *아시아여성연구*. 제56권 제1호. 107-153.
- 김영순·조영철·김정희·정지현·박봉수·오영훈·손영화·박종도·이미정·정경희·박미숙(2019). *다문화 생활세계와 사회통합 연구*. 경기: 북코리아.
- 김영순·김도경(2022). “결혼이주여성이 참여한 자조모임 공동체의 상호문화소통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5권 제2호. 5-37.
- 김영순·문희진(2022).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참여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75권 제5호. 95-119.
- 김영순·최수안(2022). “‘생성’으로서의 자조모임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61권 제1호. 127-174.
- 김영옥(2010). “인정투쟁 공간/장소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공동체”. *한국여성철학*. 제14권. 31-64.
- 김은재(2018).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지역사회연구*. 제26권 제4호. 65-90.
- 김이선·최윤정·장희영·김도혜·박신규(2020). *이주여성의 사회적 포용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사회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정선(2012).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변화하는 ‘home’의 의미와 시민으로 주체되기”. *여성학논집*. 제29권 제2호. 61-105.
- 김현미(2008). “이주자와 다문화주의”. *현대사회와 문화*. 제26권. 57-79.
- 김흥규(2008). *Q방법론: 과학, 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 민가영(2011).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정책 수용과정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2권 제1호. 83-104.
- 박경애·채옥희·정혜선·김대건(20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서태실·이윤정(2017). “조선족 이주여성의 자조모임을 통해서 본 초등학교 자녀교육경험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제24호. 369-391.
- 스마일스, 새뮤얼(2006). 새뮤얼 스마일즈의 자조론. 공병호(역). 서울: 비즈니스북스. (Smiles, S. Self-Help by Peter W. S. UK: Oxford World Classics Title, 2002).
- 양혜원·김희수·최정숙·김선화·김은경(2018). “지역사회복지관 한부모 자조집단 지원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복지사 참여실행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61권. 93-136.
- 여성가족부(2010).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와츠, 사이먼·스테너, 폴(2014). Q방법론 연구의 실행, 이론·방법·해석. 백평구(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Watts, S. & Stenner, P. Doing Q Methodological Research: Theory, Method and Interpretation. CA: SAGE. 2012).
- 오은주·고진호(2021).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경험 연구”. 인문사회 21. 제12호 제2권. 2097-2112.
- 이경준(2006). “한국과 독일의 장애인 자조모임 연구 -양국 참가자들의 지원욕구와 인식비교 및 독일의 자조모임 지원 동향”. 한국장애인복지학. 제4호. 111-166.
- 이숙진·김안나(2013).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다문화 지원기관의 상호작용”. 가족과 문화. 제25권 제2호. 234-269.
- 이윤주(2019).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읽기·쓰기 교육”.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제4권 제3호. 55-86.
- 이윤진(2022).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의 정착주기별 의미 고찰과 제언”. 한국이민정책학보. 제5권 제1호. 109-122.
- 이춘양·김수민·이현주(2020). “여가로서의 결혼이주여성 문화예술 활동 경험 탐색: ‘H’ 중국 전통무용팀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0권 제5호. 1089-1113.
- 임선우·윤황(2017).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통번역 자조모임 특성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8권 제3호. 639-660.

- 임선우(2020). “대구광역시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형성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제42권 제9호. 189-229.
- 임혜정(2017).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서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미영(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조집단 프로그램이 사회적 지지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효과. 평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성민(2021). “좋은 설득문에 대한 예비 국어교사의 인식 유형 탐색 - Q 방법론의 적용 -”. *작문연구*. 제50권. 7-38.
- 정성미(2010). 결혼이주여성의 자조모임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2018).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활동 경험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승은(2019).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의 자녀 교육 경험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101권 제2호. 77-109.
-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1). 2020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서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황정미(2012). “다문화 사회와 ‘이주 어머니(migrant mother)’”. *아시아여성연구*. 제51권 제2호. 103-142.
- Brown, S. R.(1980).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Press.
- Caplan, G. (1974). *Support systems and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Behavioral publications.
- Herrington, N., & Coogan, J.(2011). Q methodology: an overview. *Research in Teacher Education*, 1(2), 24-28.
- Khasnabis, C., Motsch, K. H., Achu, K., Al Jubah, K., Brodtkorb, S., Chervin, P., & Lander, T.(2010).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CBR guidelines*.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Kim, E. H., & Kim, Y. S.(2022). A Qualitative Study on Married Migrant Women’s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Self-help Groups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formative Learning. *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 7(1), 123-147.
- Shemmings, D.(2006). ‘Quantifying qualitative data: an illustrative example of the use of Q methodology in psychosocial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147-165.

Stainton-Rogers, R.(1995). Q methodology. In: Smith, J. et al. (Eds.), *Rethinking Methods in Psychology*. London: Sage.

Stenner, P. H., Cooper, D., & Skevington, S. M.(2003). Putting the Q into quality of life: the identification of subjective construction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using Q methodology. *Social Science & Medicine*, 57(11), 2161-2172.

Abstract

Exploring the Recognition Type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for Good Self-help Groups - Applying Q Methodology -

Soan Choi*

This study starts from the awareness that the way to vitalize the self-help group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should start from the perception of marriage immigrant women. Though this, it is intended to suggest a direction for realizing multiculturalism from below. To this end, the Q methodology, which is easy to form hypotheses and structure types from the perspectiv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was adopted as the primary research methodology.

The P sample(participant) is 20 marriage immigrant women who have participated in self-help groups for more than one year.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ecognition types of good self-help groups of marriage immigrant women was divided into six types: self-help groups connected to information; self-help groups connected to jobs; self-help groups connected to immigrant mothers; self-help groups connected to the protection of rights; self-help groups connected to healing; self-help groups connected to culture.

Suggestions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thorough reflection and support of marriage immigrant women's perspectives in the operation of self-help groups; policy support for self-help groups in open spaces; diversification of research on marriage immigrant women's communities and self-help groups; in-depth research on the operational areas of self-help groups.

Keywords : marriage immigrant women, self-help groups, Q methodology, recognition types, multiculturalism from below

* Ph.D Candidate, Inha University